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관광 팸투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희석)은 전남의 우수한 생태·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환경보호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생태관광 프로젝트'를 운영키로 하고 최근 관련 단체와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육군 31사단 여고생 일일 병영체험



향토사단인 육군 31사단은 최근 신병교육대에서 대령여고 학생 365명과 교사 13명을 대상으로 '일일 병영체험' 행사를 가졌다. <31사단 제공>

동신대 총학생회 나주시 농촌봉사활동



동신대 총학생회(회장 강장원)는 최근 나주시 공산면 일대 7개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동신대 제공>

한국지역대학연합회 경쟁력 강화 협약 체결



호남대와 경남대·계명대·관동대·아주대·울산대·전주대·한남대 등 전국 8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대학연합회'는 최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 33차 회의를 갖고, 상호간 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대 제공>

광일배 바둑대회 단체·개인전 우승 주역관리사협 광주시회 강창구·조영배·김재경씨

“마음 평정 얻는덴 바둑이 최고... 민원 해결에도 도움”

지인 사무실 빌려 한달간 특별 훈련 하기도 “직장인들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어 좋아”

“바둑을 두다보니 마음이 차분해져 아파트 주민의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19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하 주택관리사회) 강창구(56·이하 아마 5단)·조영배(40)·김재경(49)씨는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기 스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이들은 바둑이 취미인 주민들이 줄을 서서 바둑 지도를 부탁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도 이들은 두터운 팀워크를 과시



왼쪽부터 김재경·강창구·조영배씨

서 “동료와 바둑을 연구하다 보니 정도 깊어지고 실력도 늘었다”고 소개했다. 고수와 여러 명의 아마추어가 바둑을 두는 다면기(多面棋)를 통해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광일배 대회에서는 강호 포스코에 막혀 단체전 3위에 머물러야 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우승 후보 포스코와의 맞대결이었다. 조씨는 “포스코에 고수들이 많아

지난해 고전했는데,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멋지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둑은 이들의 업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씨는 “상대방의 수를 먼저 살펴야 바둑을 이길 수 있듯, 주민들의 민원도 그들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개인 결승전에서도 팀 동료 조영배씨를 263수 끝에 6집 반으로 꺾고 우승하는 결정사를 누렸다. 강씨는 “광일배 바둑대회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재미있는 대회이며, 바둑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더욱 노력해 내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후손들이 계속 들을 수 있게 기능 전수자 많이 기르겠다”

전남도 문화재 진도복놀이 보유자 지정 김관우翁

“진도복놀이를 후손들이 계속 들을 수 있게 기능 전수자를 많이 길러 내겠습니다.” 전남남도로부터 최근 진도복놀이(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무형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김관우(85·진도군)翁.



보존, 전승해 오고 있다. 진도복놀이 는 복을 어깨에 매고 양손을 들어 다양한 장단과 몸짓을 표출하면서 힘차게 복을 두드리며 추던 놀이로 농악에서 복만을 따로 독립시켜 별도의 춤으로 승화됐다.

특히 양복 치기는 진도에서만 전승된 것으로 양손에 복채를 쥐고 장구를 치듯이 두드리기 때문에 잔가락이 많이 사용되며, 몸춤과 이어짐이 빠르고 가락이 다양하다. 진도복놀이는 지난 1987년 8월 전남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양태욱 계열, 박관용 계열, 장상천 계열 등 세 부류로 전승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다양한 장단과 몸짓을 표출하면서 힘차게 복을 두드리며 추던 놀이로 농악에서 복만을 따로 독립시켜 별도의 춤으로 승화됐다. 특히 양복 치기는 진도에서만 전승된 것으로 양손에 복채를 쥐고 장구를 치듯이 두드리기 때문에 잔가락이 많이 사용되며, 몸춤과 이어짐이 빠르고 가락이 다양하다. 진도복놀이는 지난 1987년 8월 전남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양태욱 계열, 박관용 계열, 장상천 계열 등 세 부류로 전승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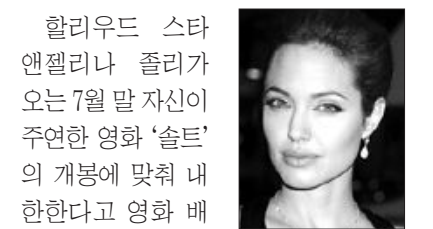
김대중 학술상에 日 와다 하루키 교수

전남대학교는 제4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에 한일 간의 해묵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남대는 와다 교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와다 교수는 국내 유신정권 시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김대중 구출운동, 재일 조선인들의 사회적 처우 개선, 전후 보상문제 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또 최근 한일 양국 지식인 214명이 발표한 ‘한국병합 무효 선언’을 일본 측에서 주도해 국제적 주목을 받는 등 한반도 평화와 북일 관계 정상화,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등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38년 일본 오사카 태생인 와다 교수는 도쿄 대학에서 사회과학연구 소 교수로 재직하며 소련사와 남북한 현대사를 연구하고 도쿄대학 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한국 전쟁’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등이 있다. 후광 김대중 학술상은 전남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5·18 정신의 학술적 계승을 위해 2007년 제정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앤젤리나 졸리 7월 한국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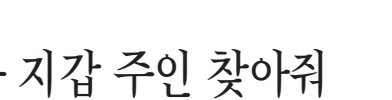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오는 7월 말 자신이 주연한 영화 ‘솔트’의 개봉에 맞춰 내한한다고 영화 배급사인 ‘스니픽처스’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졸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인어권에서 “한국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졸리의 방한이 기뻐했다”며 “졸리는 오는 7월28일 한국 관객과 만날 예정이며 체류 기간 등 자세한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군인이 300만원 든 지갑 주인 찾아줘

해군 제3함대 서석호 하사

“세상에 이런 군인이 어디있습니까. 고마움을 전하고 싶으니 꼭 칭찬해주세요.” 지난달 26일 국민 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에 오른 칭찬의 주인공은 해군 제3함대 보급지원



대에 근무 중인 서석호(30) 하사. 서 하사는 지난달 22일 울산에 사는 부모님을 보고 오는 길에 진주 문산 휴게소 화장실에서 두툼한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에는 현금과 수표 등 300만원과 신용카드, 개인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서 하사는 애타게 찾고 있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지갑 안



의 명함을 보고 주인에게 연락했고 부대 복귀 후에 바로 우체국 택배로 지갑을 보냈다. 울산에서 일직업을 하는 지갑 주인 조재연(47)씨는 울산에서 진주로 가는 길에 휴게소 화장실을 들렀다가 지갑을 놓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기기자 dss6116@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한명진·조춘자씨 차남 옹희군 김창호·조익순씨 장녀 명희양=5일(토) 오후 1시 경복궁 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양재환(나주시청 사이클감독)·김영미씨 장남 인군 김희권·임영숙씨 장녀 지은(전남대병원)양=5일(토) 오후 1시3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 춘추관홀 1층.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토)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국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광주시 북구자원봉사센터 문화 자원봉사 큐레이터 모집=5일(토)까지 10명 모집, 공원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문화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기간은 11월까지. 062-269-1365.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광주시 동구 전문봉사단 육성 교육생 모집=3일(목)까지 모집, ‘POP에쁜글씨·풍선아트’ 각 분야 15명씩, 전문기술 습득 후 봉사활동

가능한 시민 선착순 모집. 062-228-1365. ▲(사)베트남참전유공정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 페달글라이더, 탕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산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모집= 잠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개·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모집=야구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포유엔터 살시동호회 회원 수시모집=총장로 3가 총과 앞 더바다사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 모집=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 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불교 송곡, 062-232-7223~4

부음

▲이계방씨 별세 동훈(현대종합상조 이사)·정민·수연씨 부친상=발인 2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노병술씨 별세 회순·인숙·효숙·효정씨 부친상=발인 2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선녀씨 별세 오대성·춘식·동암·민웅·덕희·승애·록희·정희씨 모친상=발인 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장섭씨 별세 태현·효상·태훈씨 부친상=발인 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기우명씨 별세 용(개인사업)·대천(개인사업)·영미·유경·소연씨 부친상 선 현(해남한국병원장)·김창욱(차과원장)·김영준(아시아나항공 지점장)씨 빙부상=발인 3일(목) 상무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600-7406.

마음까지 편안함-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남경순님(남/68세) 주/부: 남경우, 남영희/조:남미, 남정숙/안영모, 남영미/허영무, 남선희/고영희. 호:실 401호, 발:인 06월 01일, 장:지 단암법인선원. 故 박삼순님(여/78세) 주/부: 송종선/김순옥, 부: 송영선, 송은혜. 호:실 402호, 발:인 06월 01일, 장:지 단암법인선원.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회장 -정말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자랑하는 프리드. 기입문의 1688-3740. 현대종합상조 권국영 대표이사